

古耳島의 王山城

— 編輯者 —

▶ 암태면 고이도의 왕산에는 지금도 옛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성에는 고려 건국에 연관된 왕망의 전설이 서려있다.

▶ 지금으로부터 약 900여년전 후삼국을 평정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그를 도와 혼란기의 평정에 헌신적인 충절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왕망이다.

▶ 그는 왕건이 권좌에 오른 뒤 자신의 공로를 무시해 버리자 그에게 악심을 품고 난을 꾀했다.

▶ 그러나 이 계획은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탄로가 나버려 훗날을 기약하며 목숨을 부지할 방도를 찾아야 했다.

▶ 결국 그는 압해면 고이도로 내려와 몸을 숨기고 있었다.

▶ 왕망은 스스로 이 지역의 왕을 자처하며 성을 쌓고 주민들에게 군사 훈련도 시키고 군량미도 비축하는 한편 인근 해상권을 장악하여 식량과 돈을 약탈하는가 하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부하로 삼아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기에 주력하였다.

▶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조정에서는 이 지방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 당연히 매 해 들어와야 할 세미(稅米)가 수 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 이것을 수상히 여긴 왕건은 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아볼 것을 명했다.

“후대 사람들은 왕망이 성을 쌓았던 고이도의 큰 산을 왕이 살았다 하여 ‘왕산’이라 부른다.”

결국 이곳에 왕망이 진을 치고 차일피일 왕위 전복을 꾀하여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중앙에서는 왕망 섬멸단을 조직하여 압해면 고이도로 내려보냈다.

관군과 왕망군 사이에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밀고 밀리는 전세가 거듭해 질수록 점차 승세는 관군 쪽에 기울어 가고 있었다.

그러자 왕망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관군 쪽으로 귀화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왕망은 훌훌 단신으로 도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안군 망운면 두무치에 있는 큰 바위에 자기가 쓰던 인(印)을 숨겼다.(이 바위를 ‘인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그 때까지도 관군은 뒤를 쫓고 있었다.

뒤에는 관군이 숨통을 조여 오고 앞에는 못이 있어 갈 길을 막으니 왕망의 발길은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고 뛰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가까워지는 관군을 뒤로하고 고시(古市)라는 연못에 뛰어 들었다.

뒤쫓던 관군 장수는 왕망이 연못에 뛰어든 것을 보고 연못의 물을 퍼낼 것을 명하였다.

“저 놈의 목을 가져오라는 어명이시니 지체할 것 없이 물을 퍼내거라”

관군이 못의 물을 모두 퍼냈을 땐 어찌된 일인지 왕망은 간 데 없고 이상하게 생긴 자라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눈앞의 현상을 괴이하게 여긴 관군의 장수는 자라의 목을 칼로 내리쳤다.

순간 자라목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솟아올랐다.

시간이 지나도 피는 그칠 줄 모르고 솟아 나와 빈 연못을 가득 채웠다.

이렇듯 왕망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나 후대 사람들은 왕망이 성을 쌓았던 고이도의 큰 산을 왕이 살았다 하여 ‘왕산’이라고 부른다 한다.

이곳 주민들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월 보름이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고 재난을 물리쳐 줄 것을 소원하였다 한다.

